

귀국학생의 대학생활에 관한 사례 연구: 부모와 동행하여 중국 생활을 한 경우를 중심으로*

박애스더**

초 록

이 연구는 부모와 동행하여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한 학생의 대학생활은 어떠한지를 탐색하기 위해 서울 지역 대학생 6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질적 사례 연구 중 하나의 방법인 KJ법으로 분석하였다. KJ법은 어떠한 현상을 드러내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연구자의 선입견에 의한 선지식을 배제한 상태에서 재구성한 후, 그것을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해석·고찰하여 문제 요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연구방법론으로 어떠한 현상의 전체상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분석 과정은 ‘취재→자료 전사→라벨 만들기→그룹 편성→도해화→서술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분석 결과, 중국 귀국학생의 대학생활에 관해서는 총 6개 그룹이 도출되었다. 사례 수가 많은 순으로 보면, ‘불만족스러운 생활’, ‘만족스러운 생활’, ‘개방적인 태도’, ‘대인관계에 대한 바람’, ‘미래에 대한 걱정’, ‘학교생활 관련 정보’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중국 귀국학생은 현재 대학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방적인 태도로 직면한 현실을 수용하였고 현재의 대인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대인관계의 중요성과 대학 문화의 문제점, 둘째, 귀국학생에 대한 대학 내 교육적 지원의 문제점, 셋째, 귀국학생의 체류 국가 및 출국 유형 관련 특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향후 과제로 귀국학생의 대학 졸업 후 진로선택에 관해 조사하여 학령기 해외생활의 영향과 이러한 해외생활 경험의 수용 양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주제어: 중국 귀국학생, 대학생활, 파견동행, KJ법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4103).

** 순천향대학교 특수아동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estherpark@sch.ac.kr

I. 서 론

지난 교육부(2011) 정의에 따르면 귀국학생이란 ‘해외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학생으로 귀국한지 6개월 미만인 초·중·고등학생’을 말하고, 최근 서울시 교육청(2018)은 다양한 귀국자 구분 중 특례편입학 대상으로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란 부모와 함께 외국 거주 중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라 지칭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단편적인 기준에 따른 귀국학생에 대한 규정은 문제가 있어 출국 형태, 현지 재학 학교, 심리 상태 등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효숙(2002)은 귀국학생이란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직업적 상황이나 학업 또는 학생 본인의 유학으로 해외에서 일정 기간 생활한 후에 귀국한 초·중·고등학생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2014)의 귀국학생 웹서비스는 귀국학생의 언어 능력, 한국 문화 적응, 체류국 문화의 내재화 정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하기에 단순히 해외 체류 및 귀국 후 기간만으로 그들을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귀국학생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시기 귀국하여 현재 한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대학생으로서 초·중·고등학생에 비해 자신의 경험을 보다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더욱이 대학생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기를 거쳐 대학 입시를 이미 경험하였고 학업에 모든 생활의 초점이 맞춰진 중·고등학교 생활과는 달리, 학업 외에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그들이 직면한 현실 세계를 드러내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앞서 밝힌 연구 참여자의 조건 외에 이 연구가 주목하는 점으로 체류국, 출국 유형, 연구 주제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간과해 온 귀국학생의 체류국에 따른 독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귀국학생 관련 연구는 귀국학생의 체류국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거나, 체류국을 의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로 영어권 국가에서 귀국한 경우(문경숙, 2009; 이영선, 이동훈, 2009; 정재욱, 주은선, 2003)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영어권 국가 외에 아시아권 국가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하는 경우에도 주목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경제적 성장과 함께 한국과 중국을 넘나드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교육인적자원부(2008)에 의하면, 중국에서 귀국하는 초·중·고등학생의 수는 2002년 618명에 머물렀던 것이 2008년에는 약 6배 폭증하여 3,635명을 기록하였다. 또한 교육통계연보(2017)의 중·고등학생 귀국 현황에 따르면, 2016년도 현재 중국에서 귀국한 학생(이하, 중국 귀국학생) 수는 중학생 687명, 고등학생 382명이다. 이는 귀국학생의 체류국 중 미국, 기타 아시아 국가에 이어 3위이며,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의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귀국학생의 출국 유형에 주목할 것이다. 국내 귀국학생의 출국 유형은 크게 유학¹⁾과 파견동행²⁾, 해외이주로 나뉜다(교육통계연보, 2017). 이러한 출국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출국 및 귀국의 계기가 다르므로 귀국 후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을 ‘귀국학생’으로 통칭할 때 드러나지 않는 독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출국 유형에 따른 개개인의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박애스더, 2014). 선행연구는 한국 사회의 교육열에 맞물려 학생 본인의 유학으로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온 학생들이 귀국학생 중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조기 유학의 경우(문경숙, 2009; 양용석, 2011)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그들의 해외 출국 형태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통계에 의한 양적 연구(고유미, 2006; 김혜순, 2009; 남정임, 2009; 이현주, 2009)로 진행되었다. 반면, 이 연구는 귀국학생의 해외 출국 형태에 관심을 두고 이를 질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즉, 자신의 의지가 아닌 가정환경으로써 부모의 직업적 이유로 해외 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한 질적 연구(박애스더, 2014)에 더하여, 부모의 파견에 동행한 경우(이하, 파견동행)로 한정하여 연구 참여자의 배경을 세분화하고자 한다. 파견동행은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해외 출국 원인 중 2위³⁾를 기록하고 있기에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셋째, 귀국학생 관련 연구 주제의 다양화를 꾀한다. 지금까지 국내 귀국학생 연구는 학교 적응 등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에 관해 주로 다루어왔으며(김혜정, 2017; 구승희, 이영순, 2011; 문경숙, 임재훈, 2012; 손인순, 최영옥, 천성문, 2010; 이종승, 2010;

1) 학생의 유학은 인정유학, 미인정유학,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가 자비로 유학을 가는 자비유학으로 나뉜다(교육통계연보, 2017).

2) 가족 전체 또는 일부의 해외 파견(발령)으로 이동한 경우다(교육통계연보, 2017).

3) 해외출국 원인 1위는 초·중학교의 경우 ‘미인정 유학’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자비유학’으로 집계되었다(교육통계연보, 2017).

이창호, 이동훈, 이영선, 신호정, 송은미, 2006; 임윤서, 심태은, 2017) 이러한 경향에서 연구 주제를 보다 다양화하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적응의 개념은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합성, 또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려는 조절 과정이라 하였다(임윤서, 심태은, 2017). 여기에 더하여 상호작용의 시점에서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환경의 변화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적응의 개념(Lazarus, 1976)을 포함할 필요가 있기에, 귀국학생의 대학생활은 어떠한지 그들이 놓인 현실 세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귀국학생의 입장에서 대학 내 환경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염두에 두었다. 또한 귀국 후 적응 중 특히 내면의 적응 여부는 외부에서 선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연구는 귀국학생의 대학 생활과 관련하여 그들이 직면한 현실 세계의 전체상을 드러내어 귀국학생을 이해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유학 등으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중·고등학교시기에 귀국한 후, 한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현재 학교생활은 어떠한지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대학생활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귀국학생의 대학생활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귀국학생 연구 동향

귀국학생 관련 선행연구의 동향에 관해서는 우선 해외 및 국내 귀국학생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에 대해 검토하고자한다. 일본의 경우, 고도 성장기에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는 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귀국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들어서다. 이후 1970년대에는 귀국학생을 구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1980년대 초반에는 귀국학생의 '적응'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80년대 후반에는 적응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 그들의 특성

을 유지하고 신장하는 것을 염두에 둔 연구가 전개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일반 학생과 귀국학생의 상호 교류에 의한 국제이해교육 및 공생교육을 지향하기 시작하였다(岡村郁子, 2008). 小島勝(1997)는 이러한 귀국학생 연구의 흐름을 초창기·확장기·충실기·안정기로 분류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의 경우, 1948년 이후 선교사나 외교관의 이동뿐만 아니라 군인, 사업 종사자들의 해외 이동이 활발하여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Pollock & Van Reken, 1999). 귀국 청소년이 문화이동으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Gaw, 2000; Harvey, 2009; Kammann & Flett, 1983)과 반면에 그들의 강점(Bushong, 2013) 또한 연구되어왔다.

한편, 국내 귀국학생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기에 아직 연구의 축적이 양적·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다문화가정과 해당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자, 수적인 증가의 비율이나 문제의 시급성 측면에서 다문화담론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귀국학생 대상 연구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2018년 현재 그 명맥을 미미하게 이어오고 있다. 그렇기에 그 연구 성과의 축적과 학교 현장 및 한국 사회로의 환원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귀국학생과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며, 귀국학생이 교육현장에서 처한 현실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朴エステル, 2010a).

국내 귀국학생 연구는 그들의 학교 적응 등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다루어왔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한국어나 학업 측면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왔으나(이장영, 최화순, 1996; 김효기, 2002; 노경주, 2003; 이창호 외, 2006), 적응의 효율성에 대한 강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귀국학생 측이 한국 사회와 학교에 맞추어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해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전제 하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적응 속도의 완급, 성적의 결과, 한국 학생다운 정도 등 한국적 가치의 내재 정도가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의 적응 개념 적용이 연구자나 교사 중심이기 때문에 일방적이며 표면적인 부분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제기(권효숙, 2002)는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귀국학생의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이해하려는 시점, 귀국학생이 한국 학교에서 생활하는 과정과 그들 내면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접근, 학교 환

경과 귀국학생 사이의 부적합의 배경, 한국 사회와 학교 측의 변화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적응에 관한 새로운 시점의 연구가 시작되었다(권효숙, 2003; 손인순 외, 2010; 이종승, 2010; 정재옥, 주은선, 2003; 정향진, 2006). 이들 연구는 연구자나 한국 학교 측이 규정한 적응이라는 잣대로 귀국학생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전의 연구와 비교하여 귀국학생을 주체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을 전후하여 발표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석사학위논문에서 그치고 있으며(김선주, 2013; 남정임, 2009; 윤경옥, 2009; 진연정, 2012), 귀국학생의 적응 관련 연구(문경숙, 임재훈, 2012; 손인순 외, 2010; 이종승, 2010; 황혜숙, 2016) 외 다른 주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김향미, 김혜정, 2014; 홍영숙, 2011). 다음으로 국내 귀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이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 동향을 개관하고자 한다.

2. 귀국학생의 체류국과 귀국 후 학교생활을 고려한 연구

국내에서 진행된 체류 국가 및 문화권과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박애스더, 2014). 첫째, 영어권 국가 및 영어권 학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들 수 있다(문경숙, 2009; 이영선, 이동훈, 2009; 정재옥, 주은선, 2003).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미국 및 영어권 국가에 체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그 외에 비영어권 국가에 체류한 경우라도 국제학교 등 영어권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또한 대상을 확대하여 영어권 및 비영어권 귀국학생이 함께 포함된 연구는 비교적 소수다(강관혜, 2001; 이창호 외, 2006). 그러므로 언어적 측면과 함께 체류 국가에 따른 학교생활에 관한 귀국학생의 심리적 측면을 다룬 연구의 여지가 남아있다.

둘째, 귀국학생이 체류한 나라나 거주 지역, 문화권에 따른 다양성에 주목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통계적 분석을 통한 차이를 검토한 연구(김혜순, 2009; 안인경, 1984;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윤미라, 2006; 이종승, 2010; 박애스더, 2011)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귀국학생이 체류한 나라에 따른 다양성에 주목

한 질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귀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나, 중국에 체류 중인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을 포함한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다(남예은, 2014; 문상명, 2003). 한편, 귀국학생의 체류국별 학교생활의 불쾌한 경험을 질적으로 검토한 연구의 결과, 중국 귀국학생은 중국의 문화나 사람이 멀리 받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朴エスター, 2010b), 중국 귀국학생을 둘러싼 현재 학교생활의 양상은 어떠한지 보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연구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귀국학생 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과 아시아권 귀국학생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주목하여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3. 귀국학생의 출국 유형에 관한 연구

국내 귀국학생의 출국 유형은 크게 유학⁴⁾과 파견동행, 해외이주로 나뉜다. 이 중 파견동행은 부모의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인해 출국한 경우를 말한다(교육통계연보, 2017). 이러한 출국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출국 및 귀국의 배경과 동기가 다르고 귀국 후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귀국학생의 출국 유형에 따른 개개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력 이해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국내 교육 현실의 특성상 파견동행에 비해 조기유학 후 귀국한 학생의 수가 많아(교육통계연보, 2017), 그동안 조기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왔고(문경숙, 2009; 양용석, 2011), 출국 유형에 따른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고유미, 2006; 김혜순, 2007; 남정임, 2009; 이현주, 2009). 출국 유형 관련 양적 연구는 귀국 후 학교생활의 적응 정도에 관한 비교 연구(김혜순, 2009; 남정임, 2009), 자아정체감의 차이에 관한 연구(고유미, 2006; 이현주, 2009), 학습전략에 관한 비교 연구(진연정, 2012)로 분류되며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부모와 동행한 경우에 관한 질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나(박에스터, 2014), 파견동행에 주목한 질적 연구의 축적은 부족하여 향후 귀국학생의 출국 유형을 고려할 때

4) 학생의 유학은 인정유학, 미인정유학,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가 자비로 유학을 가는 자비유학으로 나뉜다(교육통계연보, 2017).

조기유학뿐만 아니라 부모와 동행한 경우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경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4. 귀국 대학생에 관한 연구

귀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초등학교의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귀국 대학생들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서야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소수에 그치고 있지만, 귀국 대학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양적 연구로 설문조사를 통해 귀국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해 밝힌 연구(김혜정, 이수경, 2016; 노충래, 2002), 귀국 대학생으로 이들의 한국 사회로의 재적응 과정에서 문화정체감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오경자 외, 2010), 귀국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 요인 비교 연구(김혜정, 남초원, 이수경, 2015)가 진행되었다.

한편, 귀국 대학생의 귀국 과정 및 학교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도 진행되었다(김혜정, 2016; 박규리 외, 2008; 임윤서, 심태은, 2017; 정안숙, 오경자, 오서진, 박규리, 2015). 그 중 귀국 대학생의 귀국 후 적응 과정과 정체감에 대한 분석 결과, ‘가족과의 관계’, ‘교우관계’, ‘학교생활’, ‘이주 과정’, ‘다문화적 정체감’, ‘가족관, 양육관’, ‘직장 생활 가치관’의 7개 도메인과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박규리 외, 2008). 후속 연구로 귀국 대학생의 문화 재적응과정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 그들의 경험은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자산으로 기능한 경우’와 ‘개인의 문화정체성 형성에 방해가 된 경우’로 나뉘며,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결정짓는 요인은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성격 특질을 들고 있다(정안숙 외, 2015). 이처럼 연구 방법에 차이는 있었으나 선행연구는 모두 귀국학생의 국내 적응과 문화정체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상으로 국내 귀국학생 관련 선행연구를 개관하였다. 특히, 이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 중 귀국학생의 체류국 관련 연구, 출국 유형 관련 비교 연구, 대학생 대상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출국 형태와 체류국에 따른 귀국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방법

이 연구는 중국 귀국학생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기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대학가의 모임 장소로 면담을 진행하기에 조용하고 쾌적한 곳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시 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한 뒤 녹음하였으며, 녹음 중이라도 언제든지 참여자의 요구에 의해 녹음을 중단하거나 이미 녹음된 내용을 삭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다. 면담 시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출국 전 한국 생활, 출국 후 해외 생활, 귀국 후 한국 생활의 순이며 이 연구는 그 중 귀국 후 현재 대학 생활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귀국 후 현재의 대학생활에 대해 중점을 두었지만, 그럼에도 시간 순서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연구 참여자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상기하도록 하여, 보다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면담 횟수 및 시간은 한 사람당 1회-2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최소 1시간 반에서 최대 3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 의뢰 시, 인터뷰에 관한 설명을 진행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였으며, 면담 종료 후 인터뷰 내용 확인 및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이메일과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2. 연구 참여자 정보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별	현재 학년	전공 계열	출국 년월	출국 학년	귀국 년월	귀국 학년	중국 체류 기간	귀국 후 기간	중국 재학 학교	복수 도향 경력
A	여	대2	상경	2007. 07.	초5	2011. 02.	중3	3년 7개월	4년 11개월	한국인, 국제	없음
B	여	대1	어학	2011. 07.	중2	2015. 01.	고3	3년 6개월	1년 5개월	국제	없음
C	여	대1	상경	2010. 03.	초6	2013. 09.	고1	3년 6개월	2년 7개월	현지, 국제	있음

참여자	성별	현재 학년	전공 계열	출국 년월	출국 학년	귀국 년월	귀국 학년	중국 체류 기간	귀국 후 기간	중국 재학 학교	복수 도항 경력
D	남	대1	사회 과학	2008. 12.	초6	2013. 01.	고2	4년 1개월	3년 1개월	한국국제	없음
E	남	대2	공학	2007. 12.	초6	2012. 06.	고1	4년 6개월	3년 9개월	현지, 국제	있음
F	남	대2	상경	2009. 08.	초6	2014. 06.	고2	4년 10 개월	2년	한국인, 현지, 국제	없음

(상기한 표의 모든 정보는 인터뷰 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연구 참여자는 총 6명으로 모두 부모의 직장으로 인해 중국 파견에 동행하여 생활한 후 귀국하여 한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3명이다. 인터뷰 일시를 기준으로 현재 모두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년은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3명이다. 전공은 상경계열 3명, 그 외 어학, 사회과학, 공학계열이 각각 1명이다. 출국 시기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였으며 출국 당시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 1명, 6학년 4명, 중학교 2학년 1명이다. 귀국 시기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였으며, 귀국 시 학년은 중학교 3학년 1명, 그 외는 모두 고등학생으로 고등학교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1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중국 체류 기간은 모두 3년 이상이었으며, 귀국 후 기간은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짧게는 1년 5개월부터 길게는 4년 11개월인 경우도 있었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중국에서 국제학교에 재학한 경험이 있었으며, 저학년 당시 중국 현지 학교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3명 있었다. 또한 2명은 현지에서 한국인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중국 이외의 나라에 체류한 경험은 없었으며, 2명은 몇 차례에 걸쳐 중국과 한국을 넘나들며 생활한 경험이 있었으나, 이들의 중국 체류 경험 중 최근의 중국 체류가 기간 상 가장 길며, 해당 기간이 중·고등학교 시기에 걸쳐 있어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분석 방법

앞서 녹음한 자료를 전사하여 KJ법(川喜田二郎, 1967, 1986)으로 분석하였다. KJ법은 1967년 일본의 문화인류학자인 가와키타 지로(川喜田二郎)가 고안한 연구 방법으로, 그의 영문 이름 이니셜을 따서 명명되었다. 그는 오늘날 과학적인 정보 수집이란 정량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해악을 지적하며, 정성적인 자료의 통합을 위해 ‘정리하는 것’에 주목하여 이 때 필요한 방법론으로 KJ법을 제시하였다(川喜田二郎, 1967, 1986). 여기서 ‘정리한다’는 것은 어떠한 자료들을 하나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요약한다는 통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을 통해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의미의 분류가 아니라, 정성적인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분석과 통합의 두 가지 방법을 관련지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川喜田二郎, 1967, 1986; 박애스더, 2014). 그러나 현재 과학적인 방법은 분류, 요약, 분석에는 심혈을 기울이는데 비해 통합하여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통합 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새로운 발상을 도출해 내는 것이며, 이는 단순 비교 불가능한 이질적인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통합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점에서 가설 생성적이다. 이처럼 KJ법은 수집한 자료를 통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발상을 도출해 내는 것(abduction)⁵⁾ 외에도 현재 일본 내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어떠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전적인 질적 연구 방법이다(박애스더, 2014; 田中博晃, 2010).

KJ법(川喜田二郎, 1967, 1986)은 어떠한 현상을 드러내기 위해 수집된 자료, 즉, 인터뷰, 현장 조사, 토론 등 다양한 자료를 연구자의 선입견에 의한 선지식을 배제한 상태에서 재구성한 후, 그것을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해석·고찰하여 문제 요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즉, KJ법은 어떠한 문제 현상을 마치 사진을 찍듯이 수집된 자료의 세부 사항을 모두 모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상 및 논리적 근거를 찾아내는데

5)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창한 논리학의 한 방법.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인 퍼스(C. S. Peirce)가 부활시킨 개념이다. 川喜田二郎(1967, 1986)의 ‘발상법’은 즉흥적인 아이디어나 단편적인 착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귀납법, 연역법과 함께 논리학적인 제 3의 개념으로 인식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木下康二, 2006), 방대한 정보로부터 보다 명확한 개념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川喜田二郎, 1967; 박애스더, 2014 재인용).

강점이 있다. 이러한 강점으로 볼 때 중국 귀국학생들의 현재 대학생활은 어떠한지 그 전체상을 드러내기 위해 합당한 방법론이라고 판단하였다.

KJ법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취재→자료 전사→라벨 만들기→그룹 편성(라벨 펼치기→라벨 모으기→표찰 만들기)→도해화(그림으로 나타낸 풀이)→서술화(문장화 또는 구두 발표)’(川喜田二郎, 1986). 이러한 분석 순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라벨 만들기는 전사한 분석 자료 중 하나의 일관된 내용의 흐름을 구분하여 해당 내용을 포괄하여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라벨을 붙인다. 둘째, 그룹 편성은 그림 1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된다. 이러한 그룹 편성은 최종적으로 그룹들의 묶음⁶⁾이 10개 이내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셋째, 도해화는 2단계로 나뉘는데 우선, 전 단계에서 도출된 묶음들을 적절히 공간 배치하고, 다음으로 해당 묶음들 사이의 관계성을 선으로 표시한다. 넷째, 마지막 단계인 서술화는 도해화가 끝난 후 도출해 낸 결과를 문장이나 발표를 통해 스토리화하는 것을 말한다(박애스더, 2014, 2017).

KJ법의 가장 기본 분석 단위인 라벨은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것이 원칙(川喜田二郎, 1986)이나, 이 연구는 라벨의 상위 단위인 표찰의 경우, 뜻하는 바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2단계 그룹까지는 문장으로, 3단계 그룹부터는 명사형으로 표기하였다. 라벨은 인터뷰 원문 내용에 최대한 충실하게 명명하였으며, 가까운 내용의 라벨들을 한데 묶어 명명한 표찰은 하위 라벨들을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한 후 그룹 편성을 진행하고, 도해화 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로 서술하였다. 이 때 자료에 담긴 뜻을 라벨로 단위화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숨은 뜻을 찾으려고 너무 깊게 읽는 것을 지양해야하며, 연구자는 자료에 속뜻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되어도 그룹편성을 마친 후 그에 대한 해석이나 고찰을 통해 간파해야한다. 이 연구는 그룹 편성 시, 우선 연구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뒤 그룹 편성의 적절성, 구성 내용과 표찰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KJ법을 방법론으로 학술지 논문 게재 경험이 있는 석사학위 소지자 1인과 교육학 전공 교수 1인이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6)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의 그룹들을 한데 모은 ‘그룹’의 상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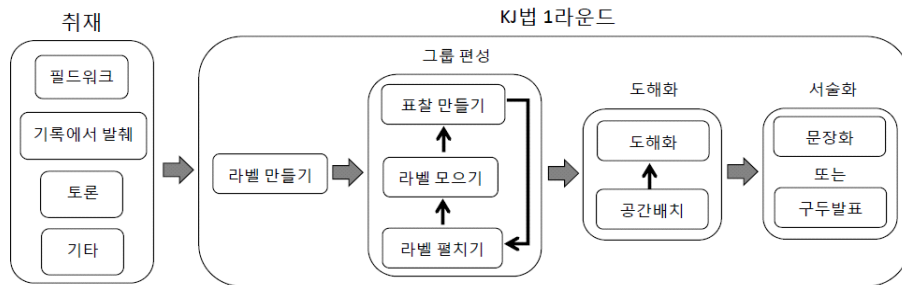


그림 1. KJ법 분석 과정(川喜田二郎, 1986: 123; 박애스더, 2014 재인용)

IV. 연구 결과

1. 중국 귀국학생의 대학생활: 전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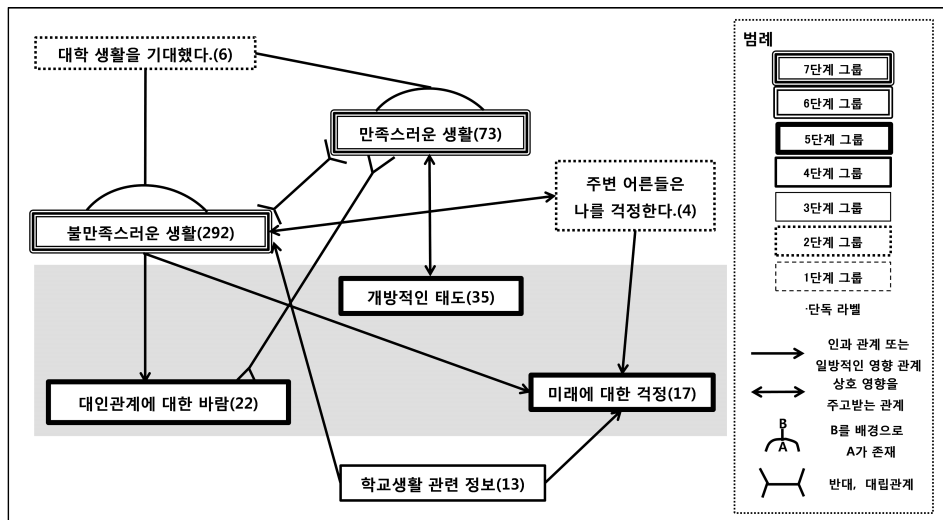


그림 2. 중국 귀국학생의 대학생활(462): 전체 보기(색인도해)

중국 귀국학생의 대학생활은 어떠한지 그 전체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색인도해(7)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8개의 그룹, 총 462개의 라벨이 도출되었

다. 각 그룹은 최소 1단계부터 최고 7단계까지며, 본문 중 각 단계별 그룹은 7단계 그룹【 】, 6단계 그룹《 》, 5단계 그룹〈 〉, 4단계 그룹『 』, 3단계 그룹「 」, 2단계 그룹[], 1단계 그룹{ }, 단독 라벨 ‘ ’로 표기한다. 도출된 8개 그룹을 상세히 보면 1개의 묶음과 5개의 그룹으로 나뉘고, 그룹의 단계를 보면 1개의 묶음은 5단계 그룹 3개로 구성되며, 5개 그룹은 7단계 그룹 2개, 4단계 그룹 1개, 2단계 그룹 2개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를 사례 수가 많은 것부터 살펴보면, 【불만족스러운 생활(292)】, 【만족스러운 생활(73)】, 〈개방적인 태도(35)〉, 〈대인관계에 대한 바람(22)〉, 〈미래에 대한 걱정(17)〉, 『학교생활 관련 정보(13)』, 『대학 생활을 기대했다.(6)』, 『주변 어른들은 나를 걱정한다.(4)』의 순이다. 그 중 직접적인 대학생활은 【불만족스러운 생활(292)】, 【만족스러운 생활(73)】, 『학교생활 관련 정보(13)』이며, 묶음으로 표시된 〈개방적인 태도(35)〉, 〈대인관계에 대한 바람(22)〉, 〈미래에 대한 걱정(17)〉은 대학생활을 통해 도출된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색인도해에 표시된 각 그룹들 간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범례에 표기한 다양한 선들은 각 그룹들 간 관계성을 나타낸다. 각 그룹에 대해서 왼쪽 위부터 차례로 설명하면, 먼저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현재 대학생활에 관한 상반되는 내용의 두 그룹이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 현재 대학생활은 만족스러운 점에 비해 불만족스러운 점이 3배 이상 많이 언급되었다. 불만족스러운 생활과 만족스러운 생활은 대립 관계며, 불만족스러운 생활은 대인관계에 대한 바람과 미래에 대한 걱정의 원인이다. 또한 불만족스러운 생활은 부모와 교수 등 주변 어른들이 귀국학생에 대해 걱정하는 것과 서로 맞물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생활과 개방적인 태도 또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한편, 만족스러운 생활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대인관계에 대한 바람도 상반되는 관계다. 이어서 학교생활 관련 정보의 하위 내용 중 교수 한 명이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업 형식은 불만족스러운 생활의 하위 내용인 교원과의 소통 부족의 원인이다. 또한 학교생활 관련 정보의 하위 내용 중 군 입대 관련 사항은 미래에 대한 걱정의 하위 내용 중 군 입대가 걱정된다는 단독 라벨의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주변 어른들의 나에 대한 걱정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도 영향을 미

7) 도해화 과정 중 분석 결과의 전체상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위 그룹은 생략하고 상위 그룹만으로 공간 배치 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쳤다. 이처럼 불만족스러운 생활과 학교생활 관련 정보, 주변 어른들의 걱정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생활이 가장 많이 다른 그룹들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중국 귀국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2. 중국 귀국학생의 대학생활: 자세히 보기

상기한 분석 결과, 귀국학생의 직접적인 대학생활로는 【불만족스러운 생활(292)】, 【만족스러운 생활(73)】, 『학교생활 관련 정보(13)』가 도출되었다. 앞서 그림 2에 제시한 색인도해의 각 그룹의 구성 내용을 그림 3-그림 7로 제시하였다. 그림 3-그림 7은 색인도해에는 최상위 단계의 표찰만 제시한 것을 자세히 살펴본 것으로 사례 수가 많은 순으로 왼쪽 위부터 배치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활에 만족한다는 언급에 비해 불만족스럽다는 언급이 3배 이상 많아, 중국 귀국학생이 현재 대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도출된 결과 중 학교생활의 핵심 내용인 【불만족스러운 생활(292)】과 【만족스러운 생활(73)】의 하위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불만족스러운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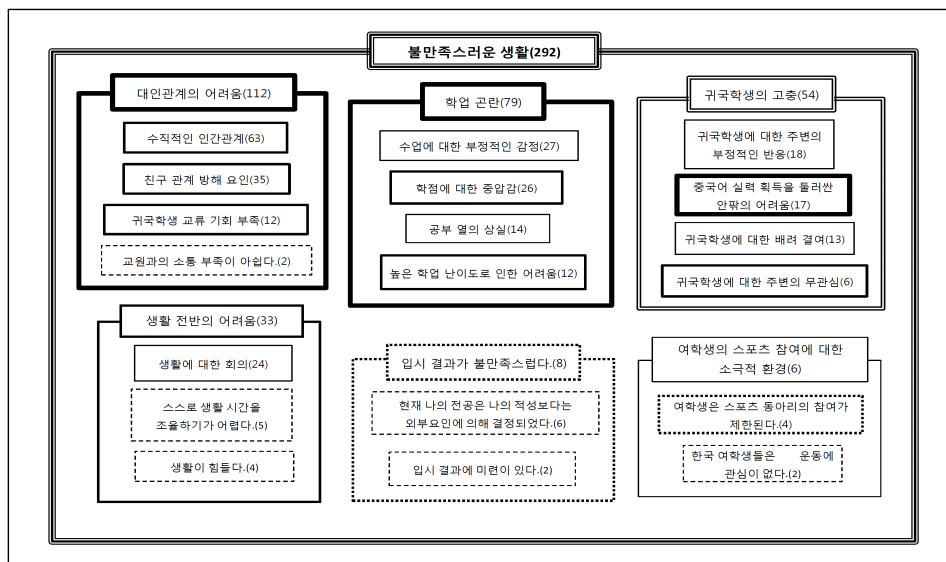


그림 3. 중국 귀국학생의 대학생활: 불만족스러운 생활(292)

그림 3과 같이 첫 번째 그룹인 【불만족스러운 생활(292)】은 〈대인관계의 어려움(112)〉, 〈학업 곤란(79)〉, 《귀국학생의 고충(54)》, 『생활 전반의 어려움(33)』, 『입시 결과가 불만족스럽다.(8)』,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소극적 환경(6)」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하위 구성 내용 중 사례 수가 많은 순서로 상위 2개 그룹의 구성 내용을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의 어려움(112)〉은 교수-학생 및 선후배 간 관계에 대한 불만을 뜻하는 『수직적인 인간관계(63)』, 원만한 교우 관계를 어렵게 하는 『친구 관계 방해 요인(35)』, 다른 귀국학생과의 접촉 기회 부족과 귀국학생 커뮤니티의 부재 등으로 인한 『귀국학생 교류 기회 부족(12)』, 교수와 조교와의 소통 부족을 반영한 「교원과 의 소통 부족이 아쉽다(2)」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 중 〈대인관계의 어려움(112)〉 중 『수직적인 인간관계(63)』에 포함되는 교수-학생 및 선후배 관계에 대한 불만의 구체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다른 교수님들은 무서워요. 수업할 때는 되게 재밌어 보이시는 분들도 나중에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되게 좀 딱딱, 갑자기 차가워진다고 해야 되나... (참여자B)

되게 불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교수님들. 교류가 없기 때문에 말 붙이기가 힘들어요. (참여자E)

입학하기 전에도 선배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술 먹는 문화가 저는 좀 싫더라고요. 앞존법도 분명하게 지켜야 되고. 호칭 같은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술 받을 때도 신경 써야 되고.(참여자D)

둘째, 〈학업 곤란(79)〉은 실망, 불만족스러움, 스트레스를 포함한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27)」,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는 『학점에 대한 중압감(26)』, 입시 공부의 피로감 누적으로 인한 「공부 열의 상실(14)」, 수업 내용의 어려움으로 대표되는 『높은 학업 난이도로 인한 어려움(12)』으로 구성된다. 그 중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27)」의 하위 그룹인 수업에 대해 실망과 불만족 및 「공부 열의 상실(14)」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수업이 고등학교랑 다를 게 없어요. 적고 끝나요. (교수님이)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저는 재미가 없어요.(참여자E)

저 중간 기말 봤는데 시험지 확인한 거 한 번도 없어요. 점수를 안 알려줘요. 점수를 모른다니까요? 딱 A인지, B인지 그것만 알 수 있는 거죠.(참여자F)

제가 공부를 못해요.(중략) 학점 관리를 해야지 하면서도 딱히 공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든요. (참여자B)

셋째, 《귀국학생의 고충(54)》은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귀국학생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신경 쓰인다는 내용의 「귀국학생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18)」, 중국어 능력에 대한 주변 기대의 부담스러움과 중국어 학습에 따른 어려움을 포함하는 〈중국어 실력 획득을 둘러싼 안팎의 어려움(17)〉, 언어 과목 수강 시 귀국학생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내용과 차별 대우를 포함하여 귀국학생이라서 받는 불이익이 있다는 「귀국학생에 대한 배려 결여(13)」, 대학과 교우들의 『귀국학생에 대한 주변의 무관심(6)』으로 구성된다. 「귀국학생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18)」, 「귀국학생에 대한 배려 결여(13)」, 〈중국어 실력 획득을 둘러싼 안팎의 어려움(17)〉의 순으로 각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직도, 심지어 대학을 이미 붙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특례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좀 있더라구요.(참여자B)

어떤 전공은 (학점이) 3.5만 넘으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 해주는데, 조건이 재외국민 제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아쉽죠. 그래도 와가지고 잘 하는 애들도 있는데 굳이 재외국민 학생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참여자E)

대외활동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뭐 얘기하다가 중국어 얘기가 나와서 ‘중국 살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 중국어 잘하겠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 (중략) 그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참여자A)

그 외 『생활 전반의 어려움(33)』, 『입시 결과가 불만족스럽다.(8)』,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소극적 환경(6)」의 세부 내용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2) 만족스러운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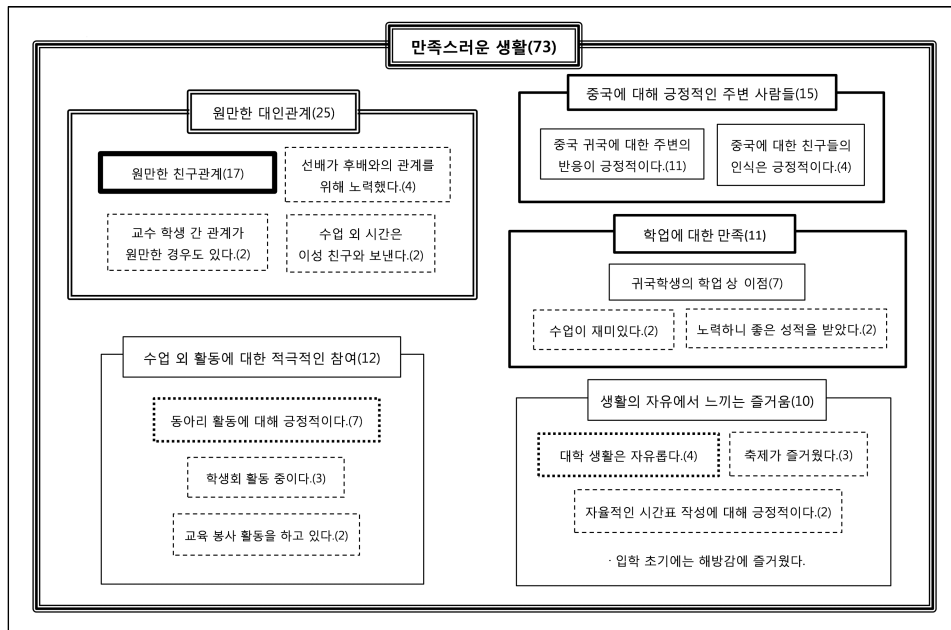


그림 4. 중국 귀국학생의 대학생 생활: 만족스러운 생활(73)

그림 4에 제시한 두 번째 그룹인 【만족스러운 생활(73)】은 《원만한 대인관계(25)》,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주변 사람들(15)』, 「수업 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12)」, 「학업에 대한 만족(11)」, 「생활의 자유에서 느끼는 즐거움(10)」으로 구성된다. 하위 구성 내용 중 사례 수가 많은 순서로 상위 2개 그룹의 구성 내용을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만한 대인관계(25)》는 입학 후 수월하게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과, 학과 내 교우 관계가 좋다는 것을 포함하는 〈원만한 친구관계〉, 귀국학생인 선배가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다는 {선배가 후배와의 관계를 위해 노력했다.(4)}, 친근한 담임 교수와 권위적이지 않은 교수도 있다는 내용의 {교수 학생 간 관계가 원만한 경우도 있다.(2)}, 이성 교제에 관한 언급으로 {수업 외 시간은 이성 친구와 보낸다.(2)}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대학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듣고 왔는데, 애들 다 잘 만난 것 같아서 (중략) ‘대학 와서 너네 같은 애들 만나서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참여자A)

그래도 저는 다행히 중국에서부터 아는 선배가 있어서 계속 도움 받고 있어요. 되게 챙겨줘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나도 그랬었다고. 그런 거 한 귀로 듣고 흘리라는 식으로. (참여자E)

둘째,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주변 사람들(15)』은 주위 사람들이 귀국학생의 중국 생활 경험을 신기해하거나 부러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국 귀국에 대한 주변의 긍정적인 반응(11)」, 중국어에 대한 관심과 중국을 강대국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의 긍정적인 중국 인식(4)」으로 구성된다.

한국에서 중국의 위상은 제가 느끼기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만 해도 개발도상국 정도? 근데 이제는 당연히 선진국. (참여자F)

애들이 거의 다 중국어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중국어 잘하겠다고. (참여자C)

지금까지 귀국학생의 직접적인 학교생활에 관한 그룹인 【불만족스러운 생활(292)】과 【만족스러운 생활(73)】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간접적인 대학생활로 1개의 묶음의 하위 세 그룹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귀국학생이 대학생활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특성인 〈개방적인 태도(35)〉, 둘째,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요구라 할 수 있는 〈대인관계에 대한 바람(22)〉, 셋째, 불만족스러운 생활과 주변 어른들의 걱정으로부터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미래에 대한 걱정(17)〉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개방적인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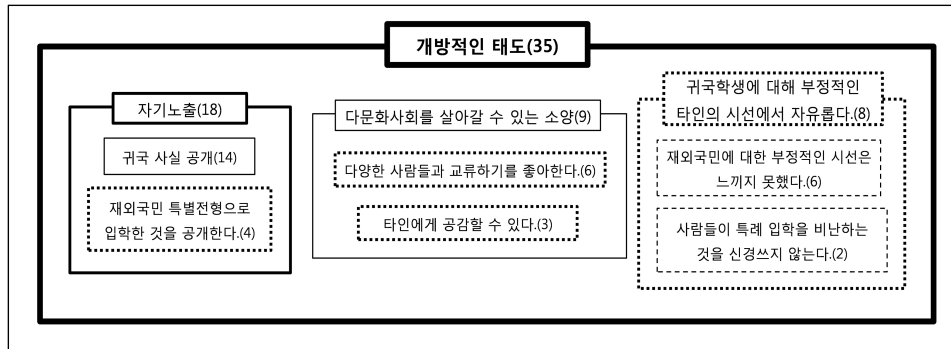


그림 5. 중국 귀국학생의 대학생활: 개방적인 태도(35)

네 번째 그룹인 〈개방적인 태도(35)〉는 그림 5와 같이 『자기노출(18)』, 「다문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소양(9)」, 「귀국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다.(8)」로 구성된다. 각 그룹의 하위 내용을 보면, 첫째, 『자기노출(18)』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거리낌 없이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귀국 사실 공개(14)」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것을 공개한다(4)」로 이루어진다.

네, 중국에 갔다 온 건 다 알아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참여자C)

음, 일단 인식 자체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갔다 온 게 창피한 건 아니니까. (참여자D)

저는 얘기하는 편이에요, 친구들한테. 그냥 뭐 전형 얘기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수능 안 보고 들어왔다고 다 얘기해요. (참여자D)

둘째, 「다문화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소양(9)」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좋아한다(6)」,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다(3)」로 구성된다. 하위 구성 내용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지향성과 그들에 대한 공감에 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8) '자기 자신의 신상에 관한 기술이나 감정 혹은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self-disclosure)'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보통 한국어로 공부하러 온 애들이 많으니까. 교양할 때는 뭐 가끔씩 만날 때도 있는데 딱히 친해질 계기가 없어서 아쉬워요. (중략) 뭔가 섞일 수 있게 해야 되는 데. 보편은 학식도 유학생들은 결국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먹고…. 그러면 유학 온 의미 없잖아요. 그런 거 (교류기회)하나라도 있으면 학교가 좀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참여자B)

외국, 외부인에 대한 포용력? 왜냐면 저도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학생의) 느낌, 감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F)

셋째, 『귀국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다.(8)』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느끼지 못했다.(6)}와 {사람들이 특례 입학에 비난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2)}로 구성된다.

솔직히 저는 욕을 먹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제가 막 특례라고 해서 욕을 먹고 그런 거는 자기들이 질투가 나거나 뭐 자기들 상황이 더 불리하다고 여겨서 그럴 수도…. (참여자B)

귀국학생은 개방적인 태도로 대학생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귀국학생의 성격 특질로써 개방성, ‘다문화에 대한 유연성’,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포함한 ‘넓은 시야’를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임윤서, 심태은, 2017; 정안숙 외, 2015; 岡村郁子, 2011).

4) 대인관계에 대한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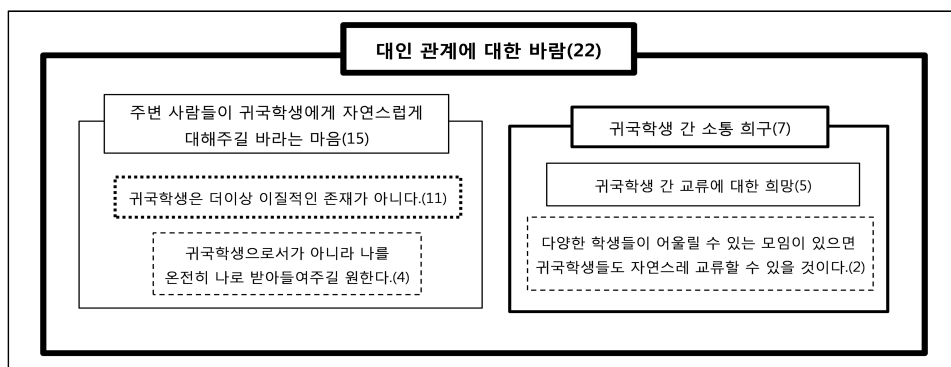


그림 6. 중국 귀국학생의 대학생생활: 대인관계에 대한 바람(22)

다섯 번째 그룹인 〈대인관계에 대한 바람(22)〉은 그림 6과 같이 「주변 사람들이 귀국학생에게 자연스럽게 대해주길 바라는 마음(15)」, 『귀국학생 간 소통 회구(7)』로 구성된다. 각 그룹들을 살펴보면 우선, 상기한 첫 번째 그룹은 『귀국학생은 더 이상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다(11)』와 {귀국학생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나로 받아들여주길 원한다(4)}로 구성된다. 이 중 전자는 귀국학생도 다른 학생에 비해 특별하지 않다는 내용과 대학 내 귀국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어 관련 학과에는 중국과 연고가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라서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귀국학생이 더 이상 소수의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언급을 포함한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 살았었지만 한국 생활을 훨씬 많이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위낙 요새 또 많이 살다가 오고 하니까 저를 특별하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참여자A)

한편, 후자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귀국학생’이라고 낙인찍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중국 귀국 경험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경험의 일부이므로 자신을 ‘귀국학생’으로만 규정짓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네, 근데 (저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주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니까 뭐 부러워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 부분(중국 귀국 사실)만 너무 부각되면 부담스러워요. 깎해봐야 겨우 4년인데...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참여자D)

다음으로 두 번째 그룹인 『귀국학생 간 소통 회구(7)』는 귀국학생 사이의 소통을 희망하고 원한다는 내용으로 「귀국학생 간 교류에 대한 희망(5)」과 『다양한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귀국학생들도 자연스레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2)』라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중략) 그래서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던... 다른 학교는 (귀국학생) 커뮤니티가 많아요. 지들끼리 같이 가는 경우도 많아서. 근데 저희 학교는 없어서 혼자 덩그러니... (참여자D)

귀국 학생 선배들이랑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한 게 있으면 선배들한테 물어볼 수 있고, 학교 커리큘럼 이런 것도 (선배가)알려줄 수 있고. (참여자C)

딱히 이 전형으로 들어와 가지고 굳이 다른 사람들이랑 다 어울릴 수 있는데 따로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인간관계가 좀 좁아지는 것도 있고, 거기만 만나면 어찌다 보면 거기가 편해서 의지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이랑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치만 특례학생, 귀국학생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참여자E)

특례 쓴 애들끼리 모이면 좀 더 말이 잘 통하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 학교는 외국인 비율이 높아서 막 딱히 특례학생들을 위한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는 것 보다는 그냥 글로벌한 그런 모임이 있으면 애들이 아마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서 소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예요. (참여자B)

5) 미래에 대한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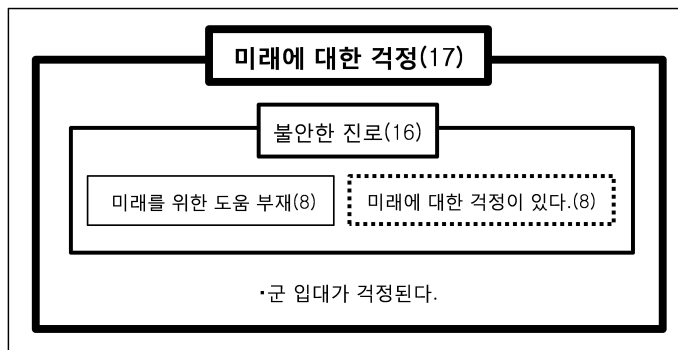


그림 7. 중국 귀국학생의 대학생활: 미래에 대한 걱정(17)

여섯 번째 그룹인 <미래에 대한 걱정(17)>은 『불안한 진로(16)』와 ‘군 입대가 걱정된다.’라는 단독 라벨을 담고 있다. 그림 7과 같이 하위 내용을 살펴보면, 『불안한 진로(16)』는 「미래를 위한 도움 부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다.(8)』로 구성된다. 전자는 학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진로 지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담임 교수와의 상담이 형식적이라 실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자신의 장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이 없다는 것이 주된 하위 내용이다.

네. 근데, 그 한 분이 저희 과 200명 넘게 다 (상담)하셔가지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웃음). (참여자 F)

진로지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커리어개발이라고. 그걸 하긴 하는데 거기서는 과의 특성을 이해 시켜주는 거지, 제 장래를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아쉬웠어요. (참여자 E)

한편 후자는 취업을 포함하여 진로가 고민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군 입대가 걱정된다.’는 단독 라벨은 남학생의 경우,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귀국학생도 이를 걱정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근데 좀 약간, 그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대학이랑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벌써 불안하고. 미래가. 취업을 못했더라, 이런 얘기들. (참여자 D)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실 뭐 봉사가 좋다는니 이런 얘기 많잖아요. 사실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참여자 A)

취업에 대한 압박은 아직 잘 실감이 안나요. 근데 이제 군대는 좀... 걱정되죠. (참여자C)

이 연구에 참여한 귀국학생은 대학 1, 2학년 학생들이었으나 특히 진로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내 진로 지도가 학사과정에 의한 필수사항에 그치고 있어 형식적이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자신의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한 부모나 교사의 지도를 받았던 중·고등학교 시기와는 달리 스스로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다.

V. 논 의

이 연구는 귀국학생의 대학생활은 어떠한지에 관해 질적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귀국학생의 직접적인 대학생활로는 불만족스러운 생활과 만족스러운 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관련 정보라는 3개 그룹이 도출되었고, 그 외 학교생활 수용 시 귀국학생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 대인관계의 어려움 중 하나인 귀국학생 간 교류 기회 부족과 귀국학생의 고충인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대인관계에 대한 바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3개 그룹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귀국학생의 학교생활은 크게 불만족과 만족이라는 상호 대립적인 내용으로 나뉘며 이는 대학생활에 대한 불만과 만족이 혼재함을 나타낸다. 또한 분석 결과, 귀국학생의 언설 수를 비교하면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보다는 불만족 관련 언설이 더 많았다. 이는 연구의 참여자가 귀국 후 국내에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학 입시에 모든 생활의 초점이 맞춰져있었기에 그만큼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현재 대학생활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입학 후 원만한 학우관계와 중국 귀국에 대한 주변의 긍정적인 반응, 수업 이외 활동 등의 면에서는 만족하나, 수직적인 대인관계로 인한 교수, 선후배 간 관계 맺음의 어려움과 교육의 질에 대한 실망 및 학점에 대한 부담감, 특례로 대변되는 귀국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한 불만족감은 만족감을 능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대인관계의 중요성과 대학 문화의 문제점, 둘째, 귀국학생에 대한 대학 내 교육적 지원의 문제점, 셋째, 귀국학생의 체류국가 및 출국 유형 관련 특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활 시 대인관계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면 귀국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판단 기준은 모두 대인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활 시 대인관계는 학교생활 만족도 및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다(구승희, 이영순, 2011; 임윤서, 심태은, 2017). 학교생활 중 대인관계의 대상은 교수, 선배, 친구로 나타났으며 한국사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이들의 주된 불만이었다. 이는 이들이 한국과 같은 동북아시아 문화권인 중국에서 생활하였지만 영미권 국제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이며 수평적인 대인관계(김혜정 외, 2015)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귀국학생

과 같이 이질적인 문화적 경험이 있는 구성원을 통해 한국 대학의 오랜 문제로 지적되어온 선후배 관계 상 ‘위계적 문화’(권인숙, 나윤경, 문현아, 2010; 나윤경, 권인숙, 2010)와 접촉 빈도가 낮으며 경직된 교수-학생 관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귀국학생에 대한 대학 내 교육적 지원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 귀국학생의 고충에 속한 하위 그룹으로 귀국학생에 대한 배려 결여가 도출된 것은 귀국학생을 둘러싸고 오래도록 지적받아온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뜻한다. 인터뷰 결과, 대학 내 다양한 구성원 중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귀국학생은 자신이 ‘귀국학생’이라서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대학은 커리큘럼, 수업, 행정절차 등에서 귀국학생에 대한 배려를 해주지 않는다는 지적(노충래, 2002; 임윤서, 심태은, 2017)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듯 이미 2000년대 초반 귀국학생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 현재 귀국학생이 놓인 대학 내 현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대인관계에 대한 바람 중 귀국학생 간 소통 회구의 구성 내용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귀국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귀국학생 커뮤니티의 부재와 귀국학생 간 교류에 대한 희망에서 나타난 것처럼 귀국학생이 그들 간 교류를 희망하면서도 귀국학생끼리만 어울릴 경우, 다른 학생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낙인찍힐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의 대학 문화가 주류와 다른 이질적인 배경이나 문화를 가진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미 선행연구는 한국 대학 내 위계적인 대인관계를 지적하였다(권인숙 외, 2010; 나윤경, 권인숙, 2010). 이것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서로 교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수와 학생 간 교류, 학생과 학생 간 교류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귀국학생들의 해외생활의 경험은 그들만의 교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 및 교환학생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귀국학생이 자신의 나라에 사는 소수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제적인 지식·경험’ 및 ‘다문화적 경험을 통한 글로벌한 감각’을 갖추었다는 해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岡村郁子, 2013;

Bushong, 2013). 이처럼 귀국학생은 교육적 개입 여부에 따라 대학의 내실 있는 국제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재로서 재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귀국학생의 체류국가 및 출국 유형 관련 특성을 들 수 있다. 먼저, 체류국가 관련 특성으로 이들은 중국 귀국을 이유로 주변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상처 받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불만족스럽게 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귀국학생이 자신의 체류국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노충래, 2002)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들에게 있어 중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그들이 청소년기에 생활했던 공간적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박애스터, 2014), 귀국학생이 자신이 체류한 나라에 대해 각별한 감정을 갖는 것은 정신건강 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小林哲也, 1981)이라 할 것인데 이를 부정당하는 것은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귀국학생의 학교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朴エスター(2010b)의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크게 변화한 점으로 이전의 한국 사람들의 부정적인 대중국관(김병조 외, 2011; 이명진, 최유정, 최선헌, 2010)과는 상반된 결과다. 즉, 예전에는 중국의 경제적 위치의 낮음을 들어 주변 사람들이 중국 귀국학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현재는 그동안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특히 주변 친구들이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하거나 개인적으로도 배우고자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귀국학생의 출국 유형인 과전동행의 영향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부모 직장의 근무 조건에 따라 가족이 해외로 이동하였다가 귀국하였다는 현실은 귀국학생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가정환경이자 삶의 배경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되며, 그러한 반응에 따라 귀국학생이 취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구성하는 하위 그룹인 귀국학생의 고충에 주변 사람들이 재외국민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귀국학생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의식하여 자신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것을 공개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였다. 국내 과열된 입시경쟁의 부정적 영향으로 대학 내 입학 전형에 따른 학생들 사이의 무시와 조롱은 심각한 수준이며, 귀국학생 대상 재외국민 특별전형도 주요 타깃 중 하나이고 해당 전형이 부모의 경제적 여유 유무에 따라 자녀의

대학 입학에 결정지어 계층적 불평등을 내포한다는 우려는 여전히 지배적이다(오마이뉴스, 2017).

그러나 이 연구의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로 부모의 일로 중국에서 생활한 것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특정 상위 계층 가정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것을 고려한다면 파견동행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오히려 문제인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대학 입시로 과열된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 학내 구성원의 배경적 다양성이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와는 반대되는 양상으로 이 연구 결과, 개방적인 태도의 하위 그룹인 자기노출 중 귀국 사실 자체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였다는 것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귀국학생 자신의 의지가 아닌 부모의 사정으로 인해 해외 생활을 하였기에 주변의 반응을 개의치 않으며,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 또한 부모의 파견에 동행한 것이 입시에 미친 결과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고 주변에 스스럼없이 밝힌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파견동행의 특수성은 귀국학생의 언어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귀국학생의 고충 중 중국어 실력 획득을 둘러싼 안팎의 어려움은 중국어 능력에 대한 주위의 부담스러운 기대와 중국어 학습에 따른 어려움으로 구성되었다. 즉, 귀국학생은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로 중국행을 택한 것이 아니었고, 중국에서도 현지 학교를 다닌 경험보다는 국제학교에 다닌 경험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으며, 가족이 함께 생활하였기에 현지 중국인들과의 교류보다는 같은 입장인 중국으로 파견된 한국인 가족들과의 교류가 압도적으로 많아 중국어 공부에 소홀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귀국학생의 언어능력과는 달리, 주위 사람들은 이들에게 능숙한 중국어 실력을 기대하거나 당연시한다는 점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언어 능력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이 귀국학생 개개인의 능력 차이와 해외 거주 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선행연구(노충래, 2002)의 결과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귀국학생의 대인관계의 원만함을 파견동행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 도출된 만족스러운 생활의 하위 그룹 중 친구, 선후배, 교수 등 다양한 주변 사람들과 귀국학생의 대인관계가 원만함을 뜻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파견

동행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간 이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발령으로 인한 중국 내 이동, 다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매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환경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귀국학생의 대학생활 중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선행연구(노충래, 2002)의 결과를 지지한다.

지금까지 중국 귀국학생의 대학생활은 어떠한지에 관해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이제껏 주목받지 않았던 귀국 학생의 체류국과 출국 유형에 주목하여 이들의 대학생활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과제는 이들이 졸업 후 진로 선택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한다면 학령기 해외생활의 경험이 이들에게 미친 영향과 이러한 경험의 수용 양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란혜 (2001). 해외귀국아동의異문화체험과 귀국 후 사회·심리적 적응. **대한가정학 회지**, 39(11), 175-191.
- 고유미 (2006). **해외 귀국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은지 (2012). 청소년 후기 대학생의 부모와의 분리-개별화 과정 관련변인이 진로결 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1(1), 47-64.
- 교육인적자원부 (2008). 초·중·고 유학생의 출국 및 귀국 통계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40103&opType=N&boardSeq=2311#regist> 2018년 2월 28일 인출.
- 교육통계연보 (2017). 201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통계자료 SM 2017-6) 교육통계서비스 웹 사이트 <http://kess.chedi.re.kr/index>에서 2018년 2월 28일 인출.
- 구승희, 이영순 (2011). 대학생의 정서표현 양가성, 대학생활 적응 및 대인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3(2), 17-37.
- 권인숙, 나윤경, 문현아 (2010). 한국과 대만의 대학문화 비교. **여성학논집**, 27(1), 145-183.
- 권효숙 (2002). **초등학교 '귀국반' 아동의 적응에 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서울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효숙 (2003). 아동의 간문화적 경험과 적응교육의 재개념화. **한국초등교육**, 14(2), 401-422.
- 김미선 (2016). 대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한민족어문학**, 73, 203-233.
- 김병조, 김복수, 서호철, 오만석, 은기수, 정미량, 정재기, 조동기 (2011).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김선주 (2013). **국내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귀국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아주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연구 보고 15-R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향미, 김혜정 (2014). 집단미술치료가 해외 귀국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문화 간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5(3), 1125-1144.

- 김효기 (2002). **스트레스, 대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가 귀국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순 (2009). 해외 귀국 청소년과 해외 유학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및 부적응에 대한 비교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21(1), 78-108.
- 김혜정 (2016). 선교사 자녀들(MK)의 적응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2), 37-64.
- 김혜정, 남초원, 이수경 (2015). 귀국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3), 433-449.
- 김혜정, 이수경 (2016). 기독교 귀국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3), 35-58.
- 나윤경, 권인숙 (2010). 선자유주의적 주제, 한국 대학생들의 선후배 관계에 대한 비판과 성찰. **평생교육학연구**, 16(2), 117-144.
- 남예은 (2014). **재중 한국 학생의 지역 인식과 정체성 형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정임 (2009). **해외거주경험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경주 (2003). 귀국학생의 삶에 대한 자연주의적 이해와 교육적 과제. **아동권리연구**, 7(2), 349-375.
- 노충래 (2002). 재외국민특례입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자긍심, 삶의 만족도 및 대학환경인식의 관계와 서비스욕구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87-120.
- 문경숙 (2009).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경숙, 임재훈 (2012). “난 내 나라가 낯설어요!” 귀국학생의 국내 학교적응경험. **교육심리연구**, 26(3), 621-649.
- 문상명 (2003). **在中國한국 유학생의 생활 空間연구: 北京우다코우(五道口) 지역 한국 유학생의 행태 연구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규리, 장지영, 이주은, Grace Min, 최윤서, 이승연, 변수연 (2008). 해외 귀국 대학생들의 다문화적 정체감에 관한 탐색적인 질적 연구.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2-513.

- 박수진, 구영애, 오윤자 (2017). 대학생의 진로 및 가치관에 따른 대학생활의 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7(1), 121-144
- 박애스더 (2014). 귀국학생의 중·고등학교생활 회고담에 관한 질적 연구: 부모와 동행하여 일본 생활을 한 경우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7(2), 231-286.
- 배상훈, 강민수, 홍지인 (2016). A대학의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그 문화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열린교육연구**, 24(3), 21-49.
- 교육부 (2011). 2009년 조기유학 관련 해외유학생 출입국 현황. <http://www.moe.go.kr/newsearch/search.jsp>에서 2014년 6월 1일 인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귀국학생 웹서비스. <http://return.sen.go.kr/index.sko?menuCd=AA01001000000>에서 2014년 6월 1일 인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2018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http://sen.go.k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kor/min/min_15.html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 손인순, 최영옥, 천성문 (2010). 해외 귀국 초등학교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3(1), 37-52.
- 안인경 (1984). **해외 귀국학생의 생활적응문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용석 (2011). **한국 학생들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국가 대상 조기유학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해외 거주 후 국내대학에 진학한 귀국 대학생의 문화 적응양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2), 125-146.
- 오마이뉴스 (2017.3.13.). 캠퍼스서열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17학번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4910&CMPT_CD=P0001에서 2018년 3월 4일 인출.
- 윤경옥 (2009). **일반 중학생과 해외 체류 경험 중학생의 인성 및 학교 적응 비교**.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미라 (2007). **귀국학생의 불안·우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진, 최유정, 최셋별 (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 이창호, 이동훈, 이영선, 신호정, 송은미 (2006). **귀국청소년의 적응관련 실태조사 및 사례분석**(제27회 특수상담사례 연구발표회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54).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영선, 이동훈 (2009). 상담일반: 귀국 청소년의 국내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4), 1783-1804.
- 이장영, 최희순 (1996). 해외 귀국 학생의 적응.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1-66.
- 이종승 (2010). 해외 귀국 청소년의 해외생활 만족도와 문화성향 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3, 49-59.
- 이현주 (2009). **청소년의 해외 유학 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윤서, 심태은 (2017). 해외장기체류 경험 학생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탐색: CQR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3, 501-537.
- 정안숙, 오경자, 오서진, 박규리 (2015). 해외거주 귀국 대학생들의 “모국” 문화재적응: 문화정체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1), 1-20.
- 정재욱, 주은정 (2003). 해외 귀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의 특성에 관한 연구: 질적 분석을 통한 귀국 중학생들의 경험 파악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329-351.
- 정향진 (2006). **귀국 청소년의 국내 적응**(제27회 특수상담사례 연구발표회 청소년상담 문제연구보고서 54).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조혜영 (2013). 대학재학 후기청소년 세대의 사회적 위치 및 정체성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5(2), 367-393.
- 진연정 (2012). **고등학교 귀국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와 학습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윤, 신혜숙 (2010). 한국 대학에서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성격과 대학교육 학습 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 대학 특성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7(2), 131-154.
- 최정윤, 정진철, 이정미 (2009). 주요국의 질 평가 접근법 비교분석에 기초한 대학의 질적 수준 평가 지표 개발. **비교교육연구**, 19(1), 25-58.
-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 용어 사전**. 한국교육심리학회(편.), (pp. 320).

서울: 학지사.

홍영숙 (2011). 홀리스틱 교육관점에서 귀국학생을 지도하는 초등교사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삶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홀리스틱교육연구**, 15(3), 121-141.

황혜숙 (2016). 초등귀국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동료멘토링 실행연구, **글로벌교육**

연구, 8(2), 87-111.

岡村郁子 (2008). 帰国生の受け入れクラスに対する意識: 受け入れ形態の差異に着目して,

異文化間教育, 28, 100-113.

岡村郁子 (2011). 「帰国体験を活かす」ことに対する意識とその形成要因について: 帰

国体験をもつ大学生へのインタビュー調査の分析から, **国際教育評論**, 8, 27-43.

岡村郁子 (2013). 海外経験によって得られた帰国高校生の特性とその関連要因: 属性と

家庭および在籍校によるサポートとの関連から, **異文化間教育**, 38, 116-129.

川喜田二郎 (1967). **発想法**. 東京: 中央公論親社.

川喜田二郎 (1986). **KJ法: 混沌をして語らしめる**. 東京: 中央公論社.

木下康二 (2006). **M-GTA グラウンテッド・セオリー・アプローチ: 質的実証研究の再生**.

東京: 引文堂.

小島勝 (1997). **海外・帰国子女教育の展開**. 江淵一公(編) **異文化間教育研究入門**. 東京:

玉川大学出版部.

小林哲也 (1981). **海外子女教育・帰国子女教育: 国際化時代の教育問題**. 東京: 有斐各新書

田中博晃 (2010). 質的データ分析法としてKJ法を行う前に, より良い外国語教育研究の

ための方法. **外国語教育メディア学会(LET) 関西支部 メソドロロジー研究部会**

2010年度報告論集, 17-29.

朴エスター (2010a). 韓国における帰国生の学校生活のストレスと関連要因, **異文化間教育**,

32, 80-97.

朴エスター (2010b). 韓国の帰国生の学校生活における不快な経験の滞在国別比較:

アメリカ・日本・中国からの帰国生を中心に, **お茶の水女子大学大学院人間文化**

創成科学論叢, 13, 127-136.

朴エスター (2011). 韓国の帰国生の学校生活におけるストレスと滞在国による差異:ア

メリカ・日本・中国からの帰国生を中心に, **お茶の水女子大学大学院人間文化創**

成科学論叢, 14, 107-116.

- Bushong, L. J. (2013). *Belonging everywhere and nowhere: Insights into counseling the globally mobile*. Fishers, IN: Mango Tree Intercultural Services.
- Gaw, K. F. (2000). Reverse culture shock in student returning from oversea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83-104.
- Harvey, E. (2009). Transitions during childhood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8(1), 3-12.
- Kammann, R., & Flett, R. (1983). Affectometer 2: A scale to measure current level of general happines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35(2), 259-265.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3rd ed.). New York: McGraw-Hill series in Psychology.
- Pollock, D. C., & Van Reken, R. E. (1999). *Third culture kids: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among worlds*. Boston, London: Nicholas Brealey Publishing.

ABSTRACT

A case study on returnees in their university lives in Korea: Focusing on the students who had stayed with their parents in China

Park Esther*

This study explored the university life of returnees (hereinafter returnees from China) who had came back to Korea during middle and high school, after staying in China with their parents.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six university students within the Seoul region, and the KJ method was used for the analysi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for the university life of the returnees from China, six groups were extracted: “dissatisfaction in life”, “satisfaction in life”, “information regarding university life”, “extroverted attitude”, “desires related to social interactions”, and “concerns about the future”.

From thes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returnees from China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current university lives, which can also reveal that they are concerned about their future. Yet, they were shown to be tolerating the reality that they face in an extroverted attitude, and they are currently hoping to improve their social relationships.

Key Words: returnees from China, university life, expat families, KJ method

투고일: 2018. 3. 12, 심사일: 2018. 5. 17, 심사완료일: 2018. 5. 31

* Soonchunhyang Exceptional Children Institute